

KOEMA NEWS

■ 태국 「Power-Gen Asia 2004」 전시회 참가

10. 5 ~ 7(3일간)까지 태국(방콕)에서 개최되는 「Power-Gen Asia 2004」에 이화전기공업(주) 등 8개사 를 파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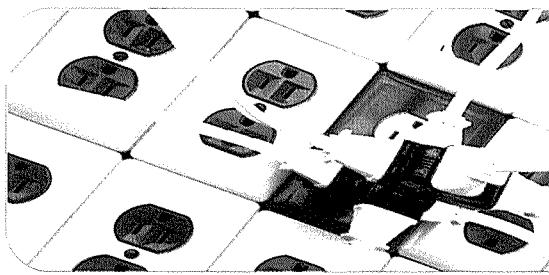
이번 전시회 파견은 국내 전력기자재의 우수성 홍보, 수출 판로개척, 시장동향 정보수집 및 「SIEF 2004 & KOREA POWER-GEN 2004」 홍보 등의 목적으로 한국전기산업관을 구성·운영했다.

대 태국간 2004년도 8월까지 전체 교역규모는 총 3,697백만불로 수출이 2,169백만불(전년동기대비 40.4%증가)이며, 수입은 1,528백만불(전년동기대비

28.3%증가)인 반면, 중전기기 분야의 교역규모는 총 교역규모의 2.8%선인 84백만불로 이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0.0% 신장한 46백만불이며 수입은 38백만 불로 26.1% 증가하였다.

태국의 전력산업은 발·송·배전을 국가가 소유한 공기업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형태로 태국 전체의 발송전 및 해외(말레이지아)와의 전력유통을 수행하고 MEA 및 PEA에 전력도매를 수행하는 태국발전공사(EGAT), 방콕과 인근 2개 현 등 수도권 지역 배전을 담당하는 수도권배전공사(MEA) 및 MEA지역이외의 77개현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배전을 수행하는 지방배전공사(PEA)

KOEMA NEWS



등 3개 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92년부터 발전분야에 대한 자유화가 진행되어 현재 독립발전사업자(IPP)와 소규모 개발사업자(SPP)가 상업 운전중에 있고 또한 PEA를 주축으로 지방 전

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금번 전시회 참가를 통한 우리 중전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이미지 제고 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사업지원실 통상전시팀, 02-581-8602)

■ 중전기기 제품안전 우수기업 벤치마킹

지난 9월 15~17일까지 중기청과 피엘협회 후원으로 중전기기 업계 임직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전기기 제품안전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변압기, 차단기, 자동화기기 등 중전기기 종합메이커인 LG산전 청주공장, 발전설비업체인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국내 중전기기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본사 등을 방문하고,

병행 실시하였다.

중전기기 제품의 경우 사고 발생시 사회적, 국가적 손실비용이 크고 해당 기업의 경영위협이 될 수 있지만, 경기불황 여파로 기업들이 제품안전 조직이나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번 사업을 추진하여 중전기기 제품안전 우수기업의 경영기법을 비교분석해 벤치마킹하면 업계의 제품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활동과 제품안전간 상관관계, 효과적인 제품안전 활동체제 세미나, 견학업체 비교분석을 통한 자사 개선 방향 워크숍, 국내 시험기술 수준 및 설비현황 강의도

(문의: 중전기기 PL상담센터, 02-581-8604)

■ 중전기기제품 원가계산 제도개선 최종사업 보고서 사전 검토회의 개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중전기기 원가계산 적용기준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보고서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화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산업연구원을 연구용역사업자로 선정 추진 중인 사업으로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

주요 회의내용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정원가와 중전기기 업계가 실제 지급하고 있는 노무비와는 많은 격차가 있어 수익성 악

본 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최종 발표되면, 재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중전기기 원가계산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여 중전기기 제품의 정부 납품단가 현실화를 꾀할 수 있어

KOEMA NEWS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전기기 업계에 수익창출을 통한 자본력 확보, 노후설비 교체 및 자동화 확대, 전문 인력 확보, 전력 IT기기 기술개발

확대, 수출증대 등의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사업지원실 기술진흥팀, 02-581-8601)

2004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2004)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3개국 성공적 해외홍보 활동수행

김준철 회장은 오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하는 「2004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2004)」 및 국내 기자재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8일 간의 일정으로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지 전기 관련단체들과 업무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전력청을 방문하여 우리 중전기기 산업전반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국내 중전제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주전기전자산업진흥회(AEEMA) Mr. Angus M. Robinson 회장을 만나 「SIEF 2004」에 적극적인 참가 및 참관을 요청하고, 양국간 전기산업 분야의 MOU 체결을 위한 개괄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오는 10월경 IEC 총회 참석차 방한하는 상근책임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키로 하였다.

이어, 인도네시아 전기산업협회(APPI)를 방문한 자리에 서는 Mr. Boey Suryadi 회장과 임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양국간 전기산업 분야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 특히, 전시기간중에는 10여명 규모의 전력기자재 구매 방문단이 내한하여 국내 중전산업 현장을 견학하고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 인도네시아 전력청(PLN) 전력기자재 구매 관계자와도 만나 양국간 전기산업 교류 활성화에 대한 환담도 가졌다.

또한 태국 전기제조공사협회(TEMCA)의 Mr. Poonpiat Tantanasin 회장과도 만나 MOU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는 물론 이어 전력청(MEA)부사장 Mr. Prasit Hemwara pornchai와 「SIEF 2004」 전시기간중 고위 관계자 초청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이번 해외 홍보활동을 통해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위상 강화와 우리 중전산업과 제품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제고로 해외교역 협력기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문의 : 사업지원실 통상전시팀, 02-581-8602)

김 병 삼 / 기획관리팀

- 대리(4급)에 임함.
- 기획관리팀 겸 중전기기 PL 상담센터 근무를 명함.